

불가리아 국가신용도 리포트

2009.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불가리아(Republic of Bulgaria)

I. 일반개황

면적	111천 km ²	G D P	498억 달러(2008)
인구	7.59백만 명(2008)	1인당 GDP	6,561 달러(2008)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Leva(Lv)
대외정책	친서방 우호관계	환율(달러당)	1.34(2008년 연평균)

- 불가리아는 2008년 기준 세계은행 발표 1인당 GNI가 5,490 달러로 EU 국가 중 가장 낮은 국민소득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 기반시설 및 제도 면에서도 낙후된 편임.
- 주변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경제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이 뒤쳐져 있고, 정경유착 등 부패가 성행하여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2004년 NATO 가입 및 2007년 EU 가입 성공을 통해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2008년까지 불가리아는 FDI증가에 힘입어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럽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대내외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최근의 경제위기로 단기간에 ERM-II로 편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로화 도입은 2014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제성장률	6.3	6.3	6.2	6.0	-5.3
재정수지 / GDP	6.4	2.7	3.5	3.0	-1.5
소비자물가상승률	5.0	7.3	8.4	12.4	2.8

자료: IFS, EIU.

□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04년 EU 가입 이후 불가리아 경제는 자본유입에 따른 총투자 증가로 2008년까지 매년 6%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유럽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FDI 유입 감소 및 내수침체 지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됨. 이미 2009년 1분기중 -3.5%, 2분기중 -4.8%(전년동기 대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전체로는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5월 및 6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1%, 18.7% 감소하였으며, 2009년 1분기 실업률은 6.7%를 기록하며 전분기 6.0%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주택가격을 비롯한 주요 자산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00년대 들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홍수피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 담배·주류제품에 대한 세율 상승,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2007년 8.4%, 2008년 12.4%를 기록하며 크게 상승하여 왔음.

- 그러나 2008년말부터 현재까지 주요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말 풍작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4분기 9.3%, 2009년 1분기 6.0%(전년동기 대비)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소비 및 투자감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수준 대비 크게 하락한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

-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불가리아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 운영 등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재정수지 흑자를 시현하여 왔음.
- 2007년 법인세율 인하(15%→10%) 및 사회분담금 3% 포인트 삭감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7년 3.5%, 2008년 3.0%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임. 이미 2009년 1~7월중 재정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동기간중 재정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하는 등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5%를 기록하며 적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에너지 산업내 비용절감 및 투자축소,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세수확대 등으로 재건전성 악화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금 및 공공부문내 임금 삭감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정책

□ 민간부문 및 서비스업 비중 증가세

- 1989년 이후 민간 부문의 성장이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80%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됨. 한편, 지하 경제 비중이 아직도 큰 편으로 GDP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나, 이는 3차 산업 중심의 현대식 산업 구조로의 이행이라기보다는 부진한 공업 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발전으로 분석됨.
 - 2007년 GDP 대비 생산비중: 농림수산업 6.3%, 공업 32.3%, 서비스업 61.8%

□ EU 중심 교역구조 및 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

- EU 회원국과의 교역비중이 매우 큰 편으로 전체 수입의 52%, 수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칸지역 국가들과의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수출국('08): 터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 주요 수입국('08):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 국내 원유 및 가스 자원 부족으로 에너지원 수입이 전체 수입의 17%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큰 폭의 대 러시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세계적 산업주기에 따라 부침이 큰 편인 금속 및 화학관련 제품이 주요 수출품으로, 구조조정, 현대화 및 외국인 투자로 인해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한편, 러시아의 가스 독점공급업체인 가즈프롬(Gazprom)사에 산업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점은 우려됨.
- 전통적 수출 주도산업이었던 농업 및 식료품, 담배 등은 점차 퇴조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08): 의류, 신발, 철강, 제철, 화학, 플라스틱, 기타 금속
- 주요 수입국('08): 원유, 천연가스, 기계류, 부품,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식물

□ **신흥시장에 대한 위험회피로 성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한 FDI 위축**

- EU 회원국 대비 저렴한 노동력, 신뢰할 수 있는 외환제도 및 기업 친화적 세제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07년에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11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주요 투자자들의 신흥시장에 대한 위험회피가 크게 증가하며 대 불가리아 자본유입이 크게 감소하였음. 2008년 대 불가리아 FDI는 전년 대비 23.2% 감소한 9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4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만연한 부패가 경제발전 지연 요인**

- 각종 반부패 관련 기관의 발표에서 루마니아와 더불어 EU 회원국 중 가장 부정부패가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EU 반부패사무소(EU Anti-fraud Office)의 200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다수의 부정·사기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EU기금 관련 정치권의 각종 스캔들 및 관리감독 능력 부족을 이유로 EU기금의 사용을 잠정 중지시킴에 따라 각종 인프라 사업, 농업개발 사업 등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됨.

□ **불가리아의 통화위원회제도 운용의 한계 직면**

-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유로화에 페그(peg)되어 있는 불가리아 Lev화의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불가리아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경제위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발트해 연안 3개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이 유로화

에 대한 페그제를 포기할 경우 불가리아도 페그제 포기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페그제 포기에 따른 경제위기 리스크(1997년 통화위기 등)도 존재함에 따라 불가리아 통화당국은 당분간 현재의 환율체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임.

□ IMF 차관 도입 가능성

- 불가리아는 2004년 8월 IMF로부터 대기성차관을 지원받은 경험(1.5억 달러 규모, 2007년 3월 종료)이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재정수지는 안정적으로 흑자구조를 유지하여 왔음.
- 2009년중 수입규모의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축소되며 외부자금 수요에 대한 부담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FDI 유입 부진 및 해외차입축소 등이 지속될 경우 IMF 및 EU 등 으로부터 금융지원 가능성이 존재함.

□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지불준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

-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불가리아 중앙은행은 자본유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은행산업내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불가리아 은행들의 지불준비율(Minimum Required Reserves) 수준을 국내에서 확보한 자금에 대해서는 12%에서 10%로, 해외에서 확보한 자금에 대해서는 10%에서 5%로 조정하였음.
- 그 결과, 약 30억 Lev(약 15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었으나, 전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외 수요감소로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둔화되고 있고 최근 부실대출자산 증가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어, 이러한 유동성 증대가 은행들의 기업들에 대한 실제대출로 확대될지는 미지수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 상 수 지	-3,347	-5,863	-10,040	-12,577	-5,329
경 상 수 지 / G D P	-12.3	-18.5	-25.4	-25.3	-11.3
상 품 수 지	-5,450	-7,028	-9,991	-12,865	1,044
수 출	11,754	15,101	18,575	22,586	23,918
수 입	17,204	22,130	28,567	35,450	22,874
외 환 보 유 액	7,992	10,892	16,424	16,757	15,545
총 외 채 잔 액	15,700	20,990	32,968	51,117	47,293
총 외 채 잔 액 / G D P	57.6	66.3	83.4	102.7	99.9
D . S . R .	27.8	14.2	16.1	16.3	18.1

자료: IFS, GDF, EIU.

□ 수입규모의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

- 관광업 발달로 인해 서비스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2007~08년 25%를 상회하며 심각한 상황을 지속함.
- 그러나 2009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정체되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총 무역규모는 2008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소폭의 상품수지 흑자 등으로 인해 전년도 25.3% 대비 감소한 1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07~08년까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충분히 보전하는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신흥시장에 대한 위험회피로 FDI 유입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어서 FDI 유입액의 경상수지 적자폭에 대한 보전 비중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유동성 공급 및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화소진으로 외환보유액은 감소

- 통화위원회제도는 불가리아의 외환보유액 관리 측면에서 양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즉, 자국 통화의 강세로 경상수지 개선에는 부정적이지만, 자국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함.
- 불가리아의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 증가, 민간부문의 외화차입 급증 등으로 2008년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불가리아 통화가치가 하락하자, 불가리아 중앙은행은 통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였으며, 2008년 9월말 200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은 2009년 7월말 현재 22.5% 감소한 155억 달러임.
- 그러나 2009년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은 2008년 4.3개월 대비 상승한 6.2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비율의 개선은 외환보유액의 증가보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민간부문 외화차입으로 총외채잔액 증가 추세

- 2006년 이후 총외채잔액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전년 대비 총외채 증가율은 67%에 달하였음. 이에, 2007년 말 총외채잔액이 총수출 대비 121%, GDP 대비 83% 수준에 달해 외채는 불가리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등장하였음.
- 이러한 외채 급증은 주로 민간은행이 국내 여신 확대를 위해 해외로부터 대규모 재원을 차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계 은행의 모회사로부터의 차입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09년에도 민간부문의 차입경향이 지속되고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총외채잔액/총수출은 2008년 153.9% 대비 크게 상승한 17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DSR과 단기외채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채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9년 총선에서 시민당 승리로 정권 교체

- 2005년 6월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 사회당(BSP, Bulgarian Socialist Party)을 주축으로 안정진보국민운동당(NMSP), 권리자유운동당(MRF)의 3개 정당이 2005년 8월 연립정부를 구성, 2009년 7월까지 집권하여 왔음.
- 그러나 2009년 7월 치러진 총선에서 시민당이 득표율 39.7%, 의석수 116석(총240석)을 확보하며 17.7%를 기록한 사회당(BSP, Bulgarian Socialist Party)을 누르고 승리하였으며, 시민당 당수 보이코 보리소프(Boiko Borisov)가 총리로 신규 취임하였음. 사회당의 총선 패배는 EU기금 관리 부실 등의 부정부패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중도우파 성향의 시민당(CEDB, 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은 2006년 12월 당시 소피아(Sofia) 시장으로 재임중인 보이코 보리소프(Boiko Borisov)의 주도하에 창당된 우파 정당으로 2007년 두 차례의 선거(유럽의회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사회당에 버금가는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
- 보리소프(Boiko Borisov) 총리는 기타 중도우파 및 우파 성향의 야당들 (Ataka, the Blue Coalition, the Law, Justice and Order Party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할 경우 시민당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정국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선에서 시민당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한 관계로 주요 정책 집행에 따른 정치적인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시민당, 부정부패 일소 및 경제회복에 정책적인 노력 기울일 것으로 예상

- 2008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부패 및 EU기금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유로 불가리아에 배정된 EU기금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관리시스템 개선이 가시화 되지 않으면 기금 사용을 재개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음.

- 이에, 당시 사회당 연립정부는 사법 개혁, 부패 및 조직적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 각 조직의 유기적 협조 체계, 내무부 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80개 긴급조치를 발표하였으나, EU기금 관리부실이 2009년 7월 총선에서 사회당의 주요 실정으로 부각되며 사회당의 총선 패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음.
- 사회당의 패인이 부정부패에 주로 기인함에 따라 시민당은 EU기금 관리 부실 등 기존에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특히, 향후 EU기금을 더욱 많이 확보하고, 기금의 관리부실에 따른 지원연기 및 집행중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민당의 EU기금 사용원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2007년 1월, EU 가입

- 2005년 4월 EU 가입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6년 11월 EU 의회의 승인으로 불가리아는 루마니아와 더불어 2007년 1월 1일 EU에 가입함.
- 불가리아는 EU 가입 후, 가입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사법부 독립 및 신뢰성 제고, 부패 및 조직적 범죄 경감 등 개혁에 대한 이행 상황 보고서를 6개월마다 EU 집행위원회 앞 제출하여 점검받고 있음.

□ 5억 유로 규모의 EU준비기금은 관리부실로 여전히 동결상태

- 불가리아 정부의 EU기금 관리부실로 2008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EU 기금중 5억 유로 규모의 EU준비기금(Pre-accession Fund)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 자금집행 연기로 인프라 및 주요 건설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시민당 정부의 대처 노력으로 향후 EU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일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변국과의 지역협력 강화 노력

- 발칸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등 발칸 지역협력체관련 회의를 적극 주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동부 유럽지역의 각종 정치·경제협력기구 의장직을 수임하는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2007. 1월부터 Central European Initiative(CEI) 의장직 수임
- 2007. 5월부터 South-East European Cooperation Process(SEECP) 의장직 수임

2. 사회 및 소요사태

□ 실업률 상승, 잠재적 사회 불안 요소로 떠올라

- 2008년 상반기까지 불가리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건설·의료·소매업 등 일부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마저 나타났음. 2004년 12.7%였던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하며 2008년말에는 6.3%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럽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특히 2009년 2월 동유럽 경제위기로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며 불가리아의 실업률은 다시 빠르게 상승하였음. 2009년 1월말 6.5%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은 2009년 4월 7%를 넘어서며 7월말 현재 7.6%를 기록중임.
- 경제정책 운용 실패 등 집권당의 실정에 대한 시위가 발생하는 등 실업률 상승은 향후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 심화

- 2008년 8월, 낙농업자들은 최근 사료 값 급등 등을 사유로 정부의 보조금 확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는 이에 4,7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각종 보조금 지급은 EU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약속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학교, 도로건설업 및 의료부문 종사자들의 더욱 거센 임금인상 요구도 예상됨.

□ 민족, 종교 등 갈등으로 인한 폭력사태 가능성 미미

- 주변 발칸지역과 비교했을 때 민족, 종교, 언어가 안정적으로 구성된 편이며, 소수 루마니아 인에 대한 잠재적 적대감이 있지만 1980년대 정부의 동화정책 이후 민족 갈등으로 인한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한 적은 없음.

- 민족구성: 불가리아인 84%, 터키인 9%, 루마니아인 5%
- 종교구성: 기독교 84%(대부분 동방정교), 이슬람교 12%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사의 등급 및 등급전망 하향조정

- 주요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투자등급(Investment Grade)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 면에서는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및 민간부문 신용팽창, 사회구조 면에서는 사법부 개혁 미진 및 부패 만연 등의 요소가 등급 상향조정을 가로막고 있음.
-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불가리아의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S&P는 2008년 10월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조정하고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하였으며, Moody's 또한 2008년 9월 불가리아의 등급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변경하였음. 2009년 1월 개최된 OECD CRE회의에서도 불가리아의 등급이 기존의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되었음.

<표 3>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기관명	현행	종전
한국수출입은행	C1('09.9)	C1('08.10)
OECD	4등급('09.1)	3등급('07.1)
S&P	BBB(Negative)('08.10)	BBB+('06.10)
Moody's	Baa3(Stable)('06.3)	Ba1('05.12)
Fitch	BBB-(Stable)('08.11)	BBB('05.8)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1992년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에 이어 1994년에는 런던클럽에서 상업채무 감면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
- 2004년 이후에는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를 통해 IMF 대기성 차관 등 정부 외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 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08년 12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6,100만 달러, 중장기 28억 달러로 총 28.6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150만 달러로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임.
- 한편, OECD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은 0등급으로서 최상위 수준임.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 감소, 수출초과 기조 유지

- 우리나라의 대 불가리아 무역규모는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음. 대 불가리아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전년대비 73.4% 증가하였음.
- 2009년 1~8월중 불가리아와의 무역도 양국의 경기침체로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음.

<표 4>

양국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1~8월	주요품목
수출	191	152	49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수입	37	64	26	동제품, 반도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현황(2009년 6월말)

- 총 10개 신규 현지법인 설립, 60백만 달러 총투자 누계실적 기록

V. 종합의견

- 2004년 EU 가입 이후 자본유입에 따른 총투자 증가로 2008년까지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황이 반전되며 2009년 경제성장률은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감소 및 대 불가리아 FDI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외채관련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FDI 유입 부진 및 해외차입축소 등이 지속될 경우 IMF 및 EU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음. 또한 최근 수년간 흑자를 유지해온 재정수지도 적자전환하며 재정건전성도 다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급격하게 상승해온 물가도 주요 에너지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7월 총선에서 시민당이 승리하며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연립정부 구성의 어려움으로 당분간 정치적인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시민당은 향후 경제회복 및 부정부패 척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임.

조사역 반형섭(☎02-3779-6665)
E-mail : hsbhan@koreaexim.go.kr